

# 복음 안에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된 70인 제자 다윗의 역사 -복음으로 여는 역대상- 대상 17:8-14, 마 1:1

정윤돈 목사님

- \* **대상17:8-14**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으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 \* **마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지전능하여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게도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소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될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간단히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다. 안식 후 첫 주일에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켰다. 그리고 50일 동안 농사를 짓다가 50일 이후에 농사의 첫 햇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다. 성령 강림하는 날과 맥추절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강림날과 맥추절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강림날과 맥추절은 다르다. 지금의 성령강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이시고 이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마가다랴방의 복음의 제자들이 1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날의 날짜가 다르게 되어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나라의 절기가 다르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금 이 시기에 섬기게 된 것이다. 그 개념자체가 반해를 지켜주신 것,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맥추라는 개념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다. 마가다랴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 날이 수장절, 맥추절, 천국에 입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새로운 첫 시작의 의미, 교회의 시작, 천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다. 이 맥추절에는 시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녀 중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 개념이 성경 안에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역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였다. 신약의 그리스도, 복음이 완성되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구약에서는 부활주일이 없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반제, 회복제는 드리지 않는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사람도, 보는 기준도 바뀌게 된다.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복음이 전파되면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금의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약한 곳에서는 인간이 애견보다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쫓이게 되면 인간이 소중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운동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램넛들을 양육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재앙과 귀신이 가지고 논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악몽을 꾸지 않는다. 자면서 귀신에게 쫓겨다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면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주시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 결론이 나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다. 다윗 왕도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해석해 주셨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신 것이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다. 새롭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역대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역사도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사무엘상하에도 다윗 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의 큰 허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시점과 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점이었고, 역대기를 기록한 시점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들의 인생과 과거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된다. 역대상서는 다윗의 인생을 복음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이다. 또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윗은 세상나라,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참된 왕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다윗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기 위해 오로지 일심, 진심, 지속하였다. 결국 다윗은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세팅하는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다윗의 중심을 배워야 하는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가진 다윗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진정한 남은 자 램넛 출신의 모델적인 70인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역할을 하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다. 왕까지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렇게 응답받도록 모든 시스템을 교회, 교단 안에 셋팅해야 한다. 그래서 각자 맞는 길로 인도해줘야 한다. 이것이 RUTC 성전의 역할이다.

1. 첫 번째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직장생활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릴까?’ 고민하면 되게 되어있다. 다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대충 살까.’하면 아무 것도 안 보인다. 다윗은 하나님제일주의였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 (1) 사실 다윗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세 명의 장수가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샘물을 구해 왔지만 다윗은 그 물을 거절하였다. 역대상 11

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으신다. 베들레헴의 우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직자의 역할이 바로 세 용사의 역할이다. 지나가는 다윗의 말을 바로 실천하지 않았는가.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2)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이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성전을 짓고 법책을 모실 공간을 마련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3)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각종 악기와 노래와 시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유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16장 8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과 중심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8절에서 11절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이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은 감사여야 한다. 그의 이름, 여호와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손바닥, 뜻을 보라’는 뜻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이다.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 때 구원받을 수 있다. 237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9절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움이 없다고 말한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11절에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36절까지 신앙고백을 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4) 또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이 말씀 지키고 보전하고 선포하는 성전건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다윗은 홀리메이슨의 중요성을 잘 아는 70인 중직자였던 것이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메이슨전쟁, 서밋전쟁인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겠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후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평생 RUTC 성전건축을 준비하는 데에 올인하였다. 우리도 그 터전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을 가지기를 축원드린다.

(5)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즉시 회개하는 복음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반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적당했을 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해도 축복받는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한

다. 그래서 완전복음체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다.

2.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 다윗이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진정으로 오직예수, 오직전도의 중심만 바로 갖는다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축복들은 무엇일까?

(1)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친히 3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셨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이다. “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하나님이 아마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편으로 만드신 것이다. 다윗은 그를 받아들여 장군으로 삼은 것이다. 진도도 그렇고 사업도 되려면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에게 또 다른 70인 제자들을 붙여주셨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이다.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 주변의 불신자들도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것이 70인 제자들이 누리는 응답과 축복이다. 불신자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을 도왔다. 역대상 14장 1절을 보겠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3) 70인 제자 다윗은 그 명성과 두려움이 온 세상 퍼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역대상 14장 17절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운동도 하고, 자신감도 갖고 영성도 가져야 한다.

(4)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인 중심을 가진 70인 제자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평생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린다. 다 양보했는데 다 이기는 것이다. 진 것 같지만 다 이기는 것이다. 최악의 환경도 이길 수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결론이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승리의 언약은 다윗과 같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세계 237복음화를 위한 RUTC성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다윗 왕처럼 237나라, 5천 종족들 위에 역사하는 세상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일 다윗처럼 참된 성전건축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복음적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해 생각했던 다윗의 중심과 다윗이 받은 응답과 작풍들을 묵상해보기를 바란다.

70인 제자 다윗처럼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탕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가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다윗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주신 그 복음적인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 언약과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